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Action Plans for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A Case Study of “Reading Cheongju”

윤 정 옥(Cheong-Ok Yoon)*

목 차

- | | |
|----------------------------|-------------------|
| 1. 머리말 | 3.1 “한 책”의 선정과 배포 |
| 2. “책 읽는 청주” 독서운동의 특성 | 3.2 독서와 토론 |
| 2.1 “책 읽는 청주”의 시작 | 3.3 프로그램의 진행 |
| 2.2 “책 읽는 청주”의 취지와 목표 | 3.4 홍보 |
| 2.3 “한 책”의 선정 원칙과 배경 | 3.5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
| 2.4 주요한 행사 | 3.6 예산 및 사업 추진 |
| 3. “책 읽는 청주” 독서운동의 성과와 문제점 | 4. 맺는 말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06년 가을 청주에서 시작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인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통해 개별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대중독서운동의 실천 및 운영방식에 따른 성과와 특성을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 책”의 선정과 배포, 독서와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 홍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예산과 사업 추진 등의 실천과정 전반을 분석한 결과는 지속적 독서진흥활동에 따른 지역사회 내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의 인지도와 위상 개선, 독서와 토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성과와 더불어 재정적 문제, 홍보 및 지역사회 참여의 부족, 역할 분담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Reading Cheongju” campaign which started as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in 2006 and conducted three times in two years. The analysis of such steps as the selection and distribution of “one book”, reading and discussion, events and programs, financial assistance, public relations, etc. document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its performance. “Reading Cheongju” campaign helped improve both the image of the Cheongju Information Library and the importance of reading and discussion in the community, while lacking in participation from diverse groups of community members, flexibility in spending public expenses, and cooperation among librarie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 청주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Community Mass Reading Campaign, Cheongju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08년 2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3월 25일

1. 머리말

1998년 미국의 시애틀시에서 처음 시작된 “한 책, 한 도시” 형태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한 지 벌써 십년에 이르며, 급세기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독서운동의 가장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매우 빠른 속도로 미국 전역에 확산되었으며, 지금까지 매달 미국의 어느 주 혹은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인가는 온 지역주민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 독서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001년 시카고시의 “One Book, One Chicago”에서 처음 “한 책”으로 선정되었던 하퍼 리의 폴리처상 수상작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 Bird)”는 2008년 1월 현재까지 무려 71개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 “한 책”으로 선정되어 수많은 도시에서 읽히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2008). 또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을 모형으로 채택하여 2006년 미국의 열 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던 “The Big Read”는 2007년 전국적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2009년까지는 400여개 도시에서 진행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NEA 2006).

우리나라에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2003년 충남 서산에서 처음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래, 전남 순천, 부산, 원주 등 여러 도시에서 크고 작은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지역의 중요한 독서진흥활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이용재 2006; 조미아 2007). 각각의 지역사회가 지닌 특성이 다른 만큼, 읽을 책을 선정하는 것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형태나 방식 등에도

점차 상이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과도 어찌면 다른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요소인 공공도서관의 역동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역사회 내 공공도서관의 역사, 위상과 규모, 주민의 참여도 등의 제반 여건이 매우 상이한 미국에서 시작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곳의 상황에 적합한 실천 및 운영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윤정옥 2007).

이 연구에서는 2006년 가을 청주에서 시작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인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개별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대중독서운동의 실천 및 운영방식에 따른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정한 지역에서의 사례연구가 다른 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고서와 지침서 등을 통하여 상세히 현황을 기술하고, 경험의 공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2. “책 읽는 청주” 독서운동의 특성

2.1 “책 읽는 청주”의 시작

“책 읽는 청주 --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이하 “책 읽는 청주”라 부름)” 독서운동은 2006년 가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인구 63만 정도의 청주는 오래 전부터

터 교육도시와 문화도시, 현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한편으로, 독서에 대한 관심이나 도서관 시설 면에서는 타 도시에 비하여 다소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공공도서관으로서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이 2003년 처음으로 개관되었고, 2004년 어린이를 위한 청주기적의도서관, 2007년 북부도서관이 각각 개관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개관을 앞둔 세 개의 공공도서관이 현재 건축 중이다.

“책 읽는 청주”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청주의 시민들로 하여금, 새롭게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일 년 여에 걸친 준비 작업 끝에 시작되었다. “책 읽는 청주”는 청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청주교육청과 CJB 청주방송이 추진하며,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이 주관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는 청주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와 국문학과,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의 교수, 지역 언론인, 충청북도 교육청의 장학사 등 청주지역의 교육, 언론, 문화 및 도서관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고, 우리나라 “한 책, 한 도시” 독서진흥운동의 산파 역할을 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이용훈 기획부장과 이권우 도서평론가가 참여하였다.

“책 읽는 청주”는 처음부터 한 지역사회에서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생각을 나누자고 하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근본적 취지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또한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전에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라 함)가 제시한 “한 책, 한 지역사회: 범 지역사회 독서의 계획”(ALA 2003)을 단계별로 참조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진 “한 책” 독서운동의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표준화, 공식화되어 가는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의 실천 방식을 상당부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물론 우리나라와는 지역사회 내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나 인식, 사회참여와 독서의식 등이 많이 다른 미국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 내에서조차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한 책’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채택되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대중독서운동을 위한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윤정옥 2007), 어느 정도 국가와 지역성을 초월한 공통적 및 보편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책 읽는 청주”에서도 많이 참조하였다.

2.2 “책 읽는 청주”의 취지와 목표

“책 읽는 청주”는 다음과 같은 취지와 목표를 실천하고자 하였다(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6).

2.2.1 취지

- 문화도시 및 평생학습도시인 청주 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책과 ‘책 읽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남녀노소가 공감하고 화합하며 이해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일체감을 고양하고자 한다.

- 책을 읽기를 통해 인쇄매체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 세계 최고 금속활자 문화의 발상지, 교육 및 평생학습도시로서 청주의 문화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었고, 2001년 시카고의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을 통해 미국 전역 및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로 확산된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대표적 성공 모형을 청주시에 적용함으로써, 시민 대상의 독서문화 저변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 그동안 많은 독서진흥활동이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책 읽는 청주’를 통해 성인대중의 독서인구도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청주시의 주요한 문화교육시설인 공공도서관의 인지도와 사회참여도를 높이고, 시민과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확장하고자 한다.

2.2.2 목표

- 일정기간 집중적인 독서관장 활동과 행사를 통해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시민의 문화역량을 제고한다.
- 책과 다양한 시청각매체를 결합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활동을 활용함으로써 인쇄 텍스트를 읽는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은 ‘읽기’의 경험을 확장시킨다.
- 청주시와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주관하며, 지역의 교육청, 대학과 언론 및 시민이 참여한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운동으로 추진한다.

-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청주기적의 도서관 및 충북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학생과 일반인 독서 동아리를 구성 및 확산시키며, 지속적 독서 및 토론활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 한국도서관협회 및 중앙의 도서평론가, 출판사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주의 문화적 지역성을 넘어서고, 시 단위(citywide) 독서진흥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2.3 “한 책”의 선정 원칙과 배경

여느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과 마찬가지로 “책 읽는 청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할 “한 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맨 처음으로 “책 읽는 청주”에서 함께 읽을 책으로 선정된 작품은 이미륵 선생의 “압록강은 흐른다”였다. 첫째의 선정 작업은 문화, 학술, 도서관계를 아우르는 아홉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에서 두 달 여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형적인 “한 책” 선정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도서선정위원들은 각각 두 세 권의 책을 추천하고, 이들 가운데서 일차 후보 책을 다섯 권 내지 여섯 권 선택하여 읽는다.
- 일차 후보 책들에 대하여 각 책의 특성과 “한 책”으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공식적 회의에서 토론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과는 이메일, 전화 등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이차 후보 책 세 권을 선정한다.
-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청주기적의도서관, CJB

청주방송 등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최종 도서선정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고려한 토론 후에 최종적으로 “한 책”을 선정한다.

도서선정위원회는 최초의 “한 책”을 선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선정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첫째, 되도록 청주의 지역적 특성을 지닌 책. 둘째, 다양한 연령층, 관심계층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 셋째, 토론이 가능한 책.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책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책을 찾지 못한 매우 어려웠고, 특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책에 대한 조건이 가장 장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되 집착하지는 않으면서 융통성 있게 “좋은 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물론 어떤 책이 누구에게든 절대적으로 “좋은 책”이라고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지만, 다음과 같이 선정된 “한 책”은 각각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었다.

2.3.1 “한 책” 선정의 이유

2006년 가을 첫 번째 “한 책”으로 선정된 이미륵 선생의 “압록강은 흐른다”는 보편적인 한국적 정서를 그리고 있으며, 고전이면서도 신선하고,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른을 포괄하는 다양한 독자층에 적합한 여러 번역본이 있으며, 책과 함께 시청각자료, 다큐멘터리, 사진 및 전기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함께 접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여러 선정위원들이 적극 추천하였던 책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초등

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된 독일에서도 중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큼 문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고,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 작품을 통해 1900년대 초반의 우리 문화와 역사, 민중의 생활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상과 삶에 비추어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함께 읽고 토론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6).

2006년 봄에 “한 책”으로 선정된 심윤경의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2002년 제7회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한동구라는 어린 소년의 시선을 통해 칠십년대 말부터 팔십년대 초반, 그를 둘러싼 가정, 사회와 학교에서의 삶, 또한 그를 스치고 간 역사의 면면을 담담하고도 정겹게 그리고 있다. 초등학교생인 소년이 화자이므로 문장이 어렵지 않아 어른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독자가 편안하면서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한편, 가족 관계, 사회변동 속의 개인, 교사와 학교의 역할, 이웃 등에 대하여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이 작품이 “한 책”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야기꾼인 작가의 뛰어난 말맛, 글맛이 가득한 데서 오는 읽는 재미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7b).

2007년 가을에는 이전에 읽었던 두 책이 각기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둘 다 작가의 자전적 성장소설이라는 성격을 띠었다는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새로운 방향에서 독자와 토론이 가능한 비소설 작품을 읽어보자, 그리고 되도록 고전을 읽어보자는 것에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최종 “한 책”으로 선정된 고미숙 선생의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

전, 열하일기”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 원문을 골라 쉽게 풀어쓰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한 작가의 노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최근 인문학계와 독서계에서 우리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라 할 만한 조선조 정조임금의 치세와 연암 박지원 선생을 비롯한 당시의 실학자들에 대하여 주목할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쉽게 ‘열하일기’의 핵심적 내용들을 접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책이라고 여겨졌다. 또한 사진자료와 더불어 연행사의 길을 더듬어 가게 함으로써, 너무도 방대하여 쉽사리 펼치지 못하였던 ‘열하일기’의 전문(全文)에도 언젠가는 한번 도전해 보고 싶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였다(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7c).

2.3.2 시민의 의견 수렴과 “한 책”의 선정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2006년 가을에는 당시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청주 전역에서 진행되었던 직지축제기간 동안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이 주관하는 홍보대에서 시민이 추천하는 책을 접수하였고, 또한 여섯 권의 후보 책들을 전시해 두고 각각에 대하여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방식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청주시청과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의 웹사이트에서 의견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7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책 읽는 청주”를 후원하는 CJB 청주방송에서 특집으로 마련한 “배틀 북스(Battle Books)”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도서선정위원들이 출연하여 세 권의 이차 후보 책들에 대하여 직접 소개하고 청취자들의 의견을 받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책 읽는 청주”에서 이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한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시민의 의견만을 전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ALA의 ‘지침’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나 원래 지명도가 높은 작가의 작품만을 알거나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ALA 2003). 따라서 “책 읽는 청주”에서는 대중적 인기보다는 “순전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한 권의 책을 읽은 것을 실마리로 하여 뒤이어 다른 책을 펼치고 싶게 만드는 작품의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한 책”을 선정하였다.

그 같은 가치 기준은 2007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모두 최종 후보 책으로 선정되었고, 시민들에게서 많은 표를 얻었던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가 “한 책”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 이전부터 매우 지명도가 높았던 이 책을 많은 시민들이 “한 책”으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봉사”와 “나눔”이라는 책 자체의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여, “책 읽는 청주”에서 목표로 하는 독서의 즐거움을 고양하기보다는 사회적 참여와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크게 보인다는 점, 때마침 아프간 인질 사태가 발생하여 시기적으로 토론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최종 선정회의에서 “한 책”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3.3 독서와 토론지침서의 작성

“책 읽는 청주”에서 일단 “한 책”을 선정 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독서와 토론의 지침서가 되는 지침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세 차

레 모두 두 사람의 도서선정위원이 지침서를 작성하였고, 선정된 책과 더불어 3-4천여 권을 배포함으로써 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세 권의 지침서 가운데 “나의 아름다운 정원” 지침서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7b):

〈나의 아름다운 정원〉

1. “책 읽는 청주” 프로젝트
2. 도서 선정 과정
3. 작가 심윤경에 대하여
4. “나의 아름다운 정원”에 대하여
5. 참고자료
6. 토론을 위하여
7. 행사일정과 진행방법

지침서는 위의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책 읽는 청주” 프로젝트의 의의와 목표, 경과 등에 대한 소개, “한 책” 선정 과정과 후보 책들에 대한 설명, 선정된 책과 작가에 대한 소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한 책”과 그 책의 주제에 관련된 다른 작품들도 소개함으로써 다른 책으로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는 작품의 배경이 된 시대와 공간, 등장하는 상징, 관련된 지식과 참고도서 등을 소개함으로써 역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지침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토론을 위하여’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가? 토론을 위하여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토론에서 어떤 질문을 해 볼 것인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 여타 독서진

흥활동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성이 독자들로 하여금 토론함으로써 생각을 나누게 한다는 것이다(윤정옥 2004). 따라서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토론의 인도자 혹은 참여자가 되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열 개 정도의 질문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실마리로 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위한 질문에서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란 제목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2.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인가?
...
5. 이 책 전체에서 주인공 동구의 성격 혹은 태도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은 어떤 것인가? 왜 그런가?
...
7. 이 책의 시대적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당신이 어떤 것을 경험했거나 관찰했던 것이 있는가?
8. 당신의 가족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은 누구이며, 지금도 그런가?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

이 같은 질문들은 “한 책”의 내용을 다루는 동시에 그 내용이나 주제가 독자들의 삶과 생각에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물론 토론에서 반드시 이 질문들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책 읽는 청주”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대부분 지침

서에서 제시된 질문들 가운데 한두 가지를 갖고 시작되지만, 토론하는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독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질문들로 인하여 매우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되었다.

2.4 주요한 행사

“책 읽는 청주”는 선정된 “한 책”과 그 책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다. 주요한 행사로는 각종 주제 전시회, 독후감과 수필 공모전, 다큐멘터리 상영 등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작가와의 만남, 다양한 형태의 시민 토론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행사의 한 예로서 2006년 청주시립정보도서관과 청주시립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청주” 기간 내내 “압록강을 흐른다”의 작품 원화 및 사진 순회전시회를 열었다. 여기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정보과의 ‘이미륵문고’에서 대관한 소장 자료와 이미륵 선생의 유족이 협찬한 자료가 전시되었다. 여기에는 이미륵 선생의 작품 17책(국내서 11책, 외국서 6책), 액자 38점(초상화 1점, 사진작품 35점, 서예작품 2점) 및 기타 자료 5종(파일 42종, 이미륵선생 사망 통지문 1종)이 포함되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하여 “압록강은 흐른다”, “무던이” 등을 출판한 계수나무 출판사가 제공한 이들 작품의 원화 12점도 아울러 전시되어, 많은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그밖에도 이미륵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KBS 텔레비전의 다큐멘타리를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청주시립도서관에서 상영하고, 초중등학교들 가운데 신청한 학교들을 방문하여 상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위해서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1970년대와 80년대 당시 청주의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회(60여 점)가 있었고,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를 위해서는 책의 배경이 된 연경과 열하 사진, 당시의 고지도, 연암 박지원 관련 도서의 전시회(사진 30점, 도서 50점)가 있었다.

2.4.1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만남은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 처음 시작되었던 미국에서도 책을 선정하기 전에, 작가가 지역사회를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ALA 2003). 작가의 방문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이면, 책의 선정에 그 가능성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 책’ 운동을 시행한 많은 도서관들에서 작가가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압록강은 흐른다”는 작가가 세상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오직 작품으로, 즉 텍스트를 통해서만 작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책 읽는 청주”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대신, 이미륵 작가의 큰 누님(어진)의 외손

1) 미국의 수많은 도시들에서 은둔 중인 작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앵무새 죽이기”를 성공적으로 읽고 있다거나,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는 ‘The Big Read’를 통해 작가를 만날 수 없는 “위대한 개츠비”, “톰소여의 모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와 같은 근대와 현대의 고전 작품을 읽는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자인 이영래 선생(이미륵선생기념사업회대표)이 2006년 맨 첫 번째 공식행사인 ‘책 읽는 청주 선포식’(10월 18일) 및 마지막 프로그램인 ‘시민대토론회 -- 한권의 책을 말한다’(12월 7일)에 참석하여, 작가의 생전의 면모에 대해 말해 주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미륵 선생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등의 소식을 청주시민들에게 전해 주었다. 또한 이미륵선생의 작품을 많이 번역하여 소개하고, 독일과 한국에서 작가를 기념하는 데 직접적으로 큰 역할을 해온 정규화 선생이 “책 읽는 청주”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서한을 보내, 의미를 더해 주었다. 작가를 대신한 주변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책”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07년 봄, “나의 아름다운 정원”의 심윤경 작가는 “한 책” 선포식과 “작가와의 만남”을 위해 두 차례 청주를 방문하였다. 심윤경 작가와의 만남은 실제로 작가의 육성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수많은 청주시민을 도서관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심윤경 작가와의 만남은 세 차례의 “책 읽는 청주”에서 가장 성황을 이루었던 행사가 되었으며, 작가 자신조차 작가로서 “사랑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독자와 교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작가와의 만남은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가 자신의 삶과 작품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작품에서 받은 감동과 즐거움을 다시 한 번 생생하게 느끼고, 작품의 배경과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 최근 작가가 출판사나 서점, 각종 기관, 단체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독자와 직접 만나거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지만, 한 도시의 시민들이 한 작가의 책을 읽고 토론하며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한 책, 한 도시” 형태의 독서운동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2.4.2 지역 방송의 협력

“책 읽는 청주”의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방송인 CJB 청주방송의 협력이다. CJB 청주방송은 두 달 여의 “책 읽는 청주” 행사 기간 동안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을 통해 삽입 광고로 행사를 안내해 주고, 특히 오후 6시의 ‘러브스페이스 일공일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루 10-15분 정도 “한 책”의 전문(全文)을 낭독하고, 퀴즈를 내는 시간을 가졌다.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직접 “한 책”을 읽게 되었는지는 직접 측정할 수 없었으나, 방송국에 전달된 문자메시지로 표현된 그들의 관심은 분명 “한 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읽어가던 중, 때마침 ‘스승의 날’ 무렵에 방송되었던, 박선생님이 동구를 사랑으로 일깨워가던 장면, 동구의 여동생 영주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 등에 대한 청취자들의 반응은 “한권의 책”이 글로나, 말로나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실제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선정된 책을 주제로 한, 혹은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인쇄텍스트로서의 책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2003년부터 “Canada Reads”라는 전국적 규모의 “한 책” 독서운동을 진행하면서, C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책을 선정하기 위한 패널 토론부터 “한 책” 및 후보

책들의 방송극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행사의 모든 진행과정을 귀로 듣게 한다. 또한 미국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한 책”을 시민들이 같이 전문을 돌려가며 낭송하거나(Readathon), 작가나 전문 낭독자가 본문을 그대로 낭독하거나 극화하는 등 여러 형태의 “귀로 읽기”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윤정옥 2004).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상매체나 전자적 접근방식을 더욱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시청각매체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읽기 방법을 통해서 인쇄텍스트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고 다시 책으로 돌아갈 수 있게 유인(誘因)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CJB 청주방송은 “책 읽는 청주” 홍보 및 작품의 이해에 크게 기여하였고, 여기서 만들어진 낭독된 전문이라는 콘텐츠는 저작권 등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앞으로도 청주 및 다른 지역의 독서 관련 행사를 위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2.4.3 다양한 토론회

“책 읽는 청주”와 같은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 지금까지 진행된 수없이 많은 다른 독서진흥활동과 구별되는 점은 독서와 더불어 토론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이다.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 1998년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을 때나, 2002년 시카고에서 “One Book, One Chicago”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크고 작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진행될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던 것은 다양한 삶의 경험과 상이한 관심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한 권의 같

은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윤정옥 2004).

“책 읽는 청주”가 지향하는 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책”을 혼자 읽는 데서 나아가, 토론을 통한 “생각 나누기”를 시도하여, 나와 남의 다름과 같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함께 즐겁게 책을 읽자”는 것이었다. 토론하기 위해 책을 깊이 읽고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책을 읽고, 누구와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생각과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다시 “즐거운 책 읽기”로 나아갈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책 읽는 청주”에서는 그 같은 목적을 위해 너댓 명으로 구성된 독서 동아리를 구성하여 소그룹 토론회를 갖고, 소그룹들 간 교차토론회를 갖기도 하며, 시내의 몇몇 커피 전문점을 북카페로 지정하여 토론회를 열고, 최종 행사를 마무리하는 기간에는 청소년 패널 토론회와 시민 패널 토론회를 열어서, 확대된 토론의 장(場)을 마련하였다.

3. “책 읽는 청주” 독서운동의 성과와 문제점

독서는 즉각적, 가시적이며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적 활동이다. “책 읽는 청주”와 같은 형태의 독서진흥활동 역시 지향하는 바는 지역사회 독서환경의 저변확대, 시민

의 독서에 대한 태도변화 및 역량의 확대라는 장기적, 비가시적, 점진적 변화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기까지는 그 성공 여부를 단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 년 반 여 동안 세 차례 “책 읽는 청주”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 한편으로, 구체적인 실천 과정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다음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3.1 “한 책”의 선정과 배포

“책 읽는 청주”에서는 선정된 책을 일정 수량 청주시에서 직접 구입하여 주요한 관공서, 지역의 도서관, 기관 자료실, 평생학습센터, 각급 학교 및 북카페에 배포하고, 등록한 토론 동아리에도 배포하여 돌려 읽게 하였다. 이 같은 방식은 현재와 같은 독서운동의 초기단계에서는 “책 읽는 청주”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책을 구해 읽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책 읽는 청주”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가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욱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배포하는 것을 받아 읽기보다 스스로 구입하거나 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책을 구하여 읽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책 선물 릴레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거나, 서점과 협력하여 선정된 책이나 후보 책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한다든지, 외부 기관, 단체, 기업, 혹은 개인 등의 후원으로 책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상당수의 책이 청주시청 및 각종 사업소, 각 구의 직능단체, 산하기관 등에 배포되었으나, 직접적으로 이들이 어떤 형태로 독서와 토론에 참여하였는지 전혀 추적할 수 없었다. 앞으로도 일정 수량의 “한 책”을 직접 배포하게 된다면, 보다 광범한 시민계층에게 적절하게 배당하고, 책을 받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책을 읽은 결과를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꼭 독후감이나 보고서와 같은 공식적 형태가 아니어도, 단 몇 줄의 단문이나 일정의 기록 등과 같은 형식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세 차례 선정된 “한 책”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그 수준에 대해서는 간혹 상반된 반응이 있었다. 세 책 모두에 대하여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너무 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책 읽는 청주”의 목표가 적어도 청소년 이상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초중등학생 정도의 독서 수준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의 독서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볍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각종 처세술책이나 우화서, 대중소설 등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독서능력이 높지 않은 어른들에게도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책에 대해서 “너무 쉽다”고 하는 독자층도 있으므로, 모든 수준의 시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되도록 보편적 독서 수준을 고려하여 모든 계층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선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한 책”의 선정에는 특별히 지역 문인의 작품에 대한 요구도 있기도 하였다. 최근 지역신문에서 “충북지역 문인의 책을 읽어야 한다”²⁾

는 주장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다. 이 기사는 또한 “청주시가 나서서 홍보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잘 살아가고 있는, 중앙 문단이나 출판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가져와” 읽게 한다고 지적하며, “책 읽는 청주”가 “청주의 문인이 브랜드화 되어 청주 문인과 청주에서 간행한 도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책 읽는 청주”의 취지가 “작가의 문예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독서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선정된 세 권의 “한 책”이 중앙 문단이나 독서계의 베스트셀러를 “쉽게 가져다” 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는 주목받지 않았어도 뛰어난 작품을 “찾아내서” 읽었다는 점, 또한 “압록강은 흐른다”와 “나의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책들이 청주를 통해서 도리어 중앙에 더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지역사회 일각의 몰이해는 “책 읽는 청주”의 지속적 확산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2 독서와 토론

“책 읽는 청주”가 한편의 책을 읽음으로써 어른, 어린이, 청소년 모두로 하여금 책 읽기의 즐거움을 다시 한 번 발견하게 하자는 목표를 가진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의 독서운동에서 거의 시도된

적이 없었던, 다양한 시민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처음으로 시도한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소그룹 토론회, 청소년 토론회, 시민토론회, 북클럽 교차 토론회 등에 토론자 혹은 청중으로서 참여하거나 관찰한 시민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²⁾. 토론 동아리를 구성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그룹들로 하여금 토론하고, 토론일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토론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토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던 시민들에게서도 한 권의 책을 매개로 한 찬반 격론이 아닌 “생각 나누기”를 통해 관심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토론문화의 정착 및 확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한편 “책 읽는 청주”에서 첫 해 185개의 동아리에 1,110명이 참여하였는데, 직장 동아리 15개, 학교동아리 34개 및 일반 동아리 136개로 구성되었다. 2007년에는 약간 수가 줄어 168개 동아리에 927명이 등록하여 활동하였다. 2007년에 오히려 동아리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첫째에 등록된 동아리들이 다시 등록하지 않고 그냥 책만 읽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숫자의 증감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진 동아리들이 지속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 읽는 청주’ 사업 종료 시점에 메일 등을 보내 독려하고, 다음 번 “책 읽는 청주”를 시작할 때,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 동양일보, 2007년 10월 7일. “테스크에서 -- ‘책 읽는 청주’ 목표 바꿔보자”

3)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7.

또한 “책 읽는 청주” 초기 기획단계에서는 지역의 기관, 단체, 회사, 청주산업공단 등의 직장 내 독서동아리들과 같은 기존의 모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초청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그러나 이들 외부 동아리를 파악하고, 직접 접촉하는 등의 업무를 청주시립도서관 사서들이 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같은 외부 인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바람직했을 것이나, 실현하지는 못 했다.

시민토론회나 청소년 토론회 등은 참여자로서의 패널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청중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시민토론회가 주중 오전으로 정해지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고 특히 청소년들이 시민토론회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따라서 실제 관람자의 숫자만으로 토론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그에 비해 청소년 토론회는 주말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청소년들이 올 수 있어 바람직하였지만, 역으로 일반인들의 관람이나 참여는 저조하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책 읽는 청주”를 통해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동아리 안에서 책을 읽는 누구든지 토론의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토론의 인도 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참여자 각 사람이 인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동아리를 구성하고 인도하며, 토론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3 프로그램의 진행

“책 읽는 청주”는 책을 읽으면서 책, 작가 및 그 주제에 관련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선정된 “한 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압록강은 흐른다”를 위해 KBS 텔레비전에서 제작한 ‘작가의 발자취를 찾아서(이미록 선생 편)’ 다큐멘타리를 입수하여 도서관과 학교 등에서 상영하고, 국립중앙도서관과 출판사의 협조를 얻어 작품의 원화, 작가의 사진 및 유품 등의 전시회를 가진 것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 책에 관한, 그리고 책을 매개로 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종종 지나치게 행사와 프로그램에 치중함으로써, 독서와 토론이라는 본질적 목표의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책 읽는 청주”는 이 점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였고, 거기에는 서산에서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시범사업 및 여러 도시의 ‘한 책’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 한국도서관협회의 이용훈 기획부장과 이권우 출판평론가의 전문적 조언과 참여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얻은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책 읽는 청주”에서 보다 창의적인 독서 관련 활동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압록강은 흐른다”에 관련하여 “무심천은 흐른다”라는 주제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1900년대 초기 청주

의 문화와 역사를 아울러 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나, 시간적 제약과 재원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려웠다. 다만 향후 “책 읽는 청주”의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관련 문화 활동 및 콘텐츠 발굴에도 기여 가능성이 있음을 전망할 수 있었다. 보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는 청주”가 지향하는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목표와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여타 독서진흥활동들과 차별성 및 특이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시민의 참여를 북돋을 필요가 있다.

새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독후감과 수필 공모 등 책 읽기의 전통적 결과물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클 수밖에 없었다. 책을 읽은 감상을 독후감만이 아니라, 그리기, 만들기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유행이 되고 있는 UCC(이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독후활동 및 창작을 자극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도 하였다. 실제로 독후감 공모전에는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이 응모하지 않았고, 책을 읽어도 ‘글쓰기’에 관심이나 소양이 없는 사람들은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독후감 공모와 같은 행사 참여자의 숫자가 “책 읽는 청주”의 성공 여부의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4 홍보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가 대학, 언론, 청

주 및 충북교육청, 도서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로 구성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한 홍보가 비교적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주교육청 및 충북교육청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문 발송과 협조요청, 청주대학교 교내의 홍보 등이 학생 및 대학생층의 독자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지역방송인 CJB 청주방송이 참여한 것은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둘 다 가졌다. CJB 청주방송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과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 광고를 제공한 것은 대중적으로 독서운동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반면에 특정한 방송이 개입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의 타 언론매체가 전혀 관여하지 않게 된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서 있는 중앙 일간지나 텔레비전의 청주 혹은 충북 주재기관들은 “책 읽는 청주”를 기사화하지 않았다. 도리어 한겨레신문⁴⁾ 경향신문⁵⁾ 등 중앙의 일간지에서 직접 “책 읽는 청주”에 대하여 보도하고, 바람직한 지역사회의 독서운동으로 “뿌리 내리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따라서 지역 내 언론매체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청주시 전역에 포스터나 플래카드 등 전체적으로 게시물 수량이 매우 적었고, 그에 따라 보다 가시적인 홍보 기간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주시 공용차량이나 충북중앙도서관 이동도서관 차량 등에 “책 읽는 청주”를 알리는 광고를 부착하고, 보

4) 한겨레신문. 2007년 12월 27일. “사람과 풍경”; 2007년 5월 인터넷판. “책 읽는 청주”

5) 경향신문. 2007년 11월 15일. “책 읽기 365. 책 읽는 청주 -- 책으로 소통하는 행복도시”

전소, 기차 역사,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등 대중의 이동의 빈번한 장소에 ‘공익광고’의 일부로서 계속 공지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밖에 “책 읽는 청주”가 직접 도서관 밖으로 나아가, 연중 청주 및 충북 유관 지역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사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서, 충북교육청의 ‘청풍명월 책 축제’와 ‘평생교육축제’ 등의 행사, 청주시의 ‘직지축제’를 비롯하여, 각종 지역 행사에 홍보대를 설치하고,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가시성이 큰 시간과 공간을 통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및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책 읽는 청주”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청주시와 청주시립정보도서관 뿐만 아니라, 청주기적의 도서관, 충북중앙도서관 및 각급 학교도서관, 청주 소재의 모든 대학언론, 대학도서관 등과 링크하여, 대학 내의 신문과 방송, 도서관 관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책 읽는 청주”에 관한 정보가 게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공식 웹사이트에 “책 읽는 청주” 내용을 올림으로써, 타 지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다.

3.5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미국 등지에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한 가지는 지역

의 개인, 단체, 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한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책 읽는 청주”는 청주시, 도서관 및 지역사회의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책 읽는 청주”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향후 지역사회의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독서, 교육 및 문화관련 부문의 외부, 즉, 예를 들어, 경제계라든지 법조계, 병원, 극장, 박물관, 미술관, 각종 민간단체, 지역유지와 명사 등이 “책 읽는 청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부문이 참여하면서 재정적 지원, 예술적 후원, 물리적 시설 및 편의 제공 등 여러 형태의 협력과 후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일 뿐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시민 개개인의 참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단 “책 읽는 청주”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책 읽는 청주”를 위한 구전(口傳) 홍보자 및 협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3.6 예산 및 사업 추진

“책 읽는 청주”가 청주시의 재정 지원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예산 집행 창구의 일원화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독서진흥과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대하여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또한 2006년, 2007년에 이어 2008년까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일단은 지속적이고 장기적 독서진흥활동의 전망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시의 예산에 의존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실제 사업 추진 시에 필요한 여러 부문의 세부적인 비용의 지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의 융통성 있는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욱이,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등도 전적으로 민간자원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 읽는 청주" 자체가 관(官) 주도 활동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의 "책 읽는 청주" 담당 실무자들이 정규 사서업무와 병행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책 읽는 청주"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타 업무의 부담을 갖지 않은 실무자가 필요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청주시립정보도서관에 "책 읽는 청주" 전담 사서를 두고,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와 더불어 1년 단기적 계획 및 3-5년 장기적 계획의 로드맵을 마련하여, 청주의 독서 및 문화진흥 활동을 거시적 안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책 읽는 청주"를 위한 청주 내 도서관들 간의 역할 분담이 보다 명확하게, 또한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이 일반 부문, 청주시립도서관이 어린이 부문, 충청북도 교육청에 소속된 충북중앙도서관이 학교 부문을 담당하는 식으로 영역을 나누어, 실무 태스크포스

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충북중앙도서관은 2007년 상반기 "한 책" 선정 과정에는 참여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직접적인 행사나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사회 내 도서관들이 모두 협력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 면에서 미흡하였다. 2007년 새로 개관한 청주시립북부도서관 및 각급 학교 도서관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책 읽는 청주"가 청주시립도서관만의 단기간 행사가 아니라, 청주시 모든 도서관에서 상시 운영되는 활동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책 읽는 청주"는 2006년 10월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적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의 실무자 및 지역의 관심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전반적 특성 및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의 실천 사례에 대한 학습과 준비가 있었다. 또한 공식적 선포 이후에는 세부계획의 수립과 실제 진행 과정을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함으로써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전체적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라는 이른바 "공급자" 측면에서의 준비와 학습이 잘 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수요자" 즉 시민들이 준비나 실행의 평가 단계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다양한 형태의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토론일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지만, 그 밖의 전시회, 작가와의 만남 등 다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해당 프로

그램 각각에 대하여, 그리고 “책 읽는 청주” 전반에 관하여 의견이나 개선 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 경로가 없었다. 대체로 사람들이 토론일지와 같이 기명하여 제출하는 양식에는 부정적인 의견이나 직접적 비판을 잘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긍정적 의견뿐만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평가 양식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제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개선을 위해 참조해야 할 것이다.

참여자의 평가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보의 미흡, 행사기간의 짧음이나 일정이 맞지 않음, 행사장소의 제한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책 읽는 청주” 기간이 끝난 후 알게 되었거나, 알았어도 참여할 수 없었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개선을 위해 참조할 필요가 있다.

4. 맺는 말

이 연구는 청주에서 2006년 가을에 시작된 “책 읽는 청주” 독서운동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 책”의 선정원칙과 배경, 선정의 이유, 시민의 의견 수렴과 “한 책”의 선정과정, 독서와 토론지침서의 작성, 주요한 프로그램의 진행 등에 있어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첫 해의 “책 읽는 청주”는 많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못하였으나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2007년부터는 매년 두 차례 진행하도록 확대되었고, 2008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책 읽는 청주”는 사전에 미국과 국내 다른 지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가짐으로써 비교적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한 책”의 선정과 배포, 독서와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 홍보, 지역사회와의 협력, 예산과 사업 추진 등의 실천과정 전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성과와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는 청주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생겨날 수 있는 고유한 문제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보편적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있다. 또한 실행과정에서 한쪽 면에서 긍정적인 것이 다른 면에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테면 청주시에서 “책 읽는 청주”를 재정 지원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 업무 수행이 가능했으나, 관료체제 하에서 예산 집행의 경직성과 관리개입한 정책적 사업으로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지역 방송인 CJB 청주방송이 적극 참여함에 따라 다른 언론매체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책 읽는 청주”의 실천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 책”의 선정과 배포: 선정된 “한 책”의 배포와 활용의 편향성, 책의 선정 시 시민의견의 전적인 수렴 어려움, 선정된 책의 수준에 대한 상반된 반응 및 지역 문인의 작품에 대한 요구 충족 어려움.
- 독서와 토론: 새로 구성된 동아리의 지속 참여의 동기 부여 없음, 기업, 대학, 학교 내의 다양한 기존 독서동아리의 참여 부족, 일정과 홍보 문제로 시민토론회 등에 청중 참여 어려움.

- 프로그램의 진행: 독후감 등 전형적 활동에 의존. 보다 창의적 책 관련 프로그램 및 독후활동의 개발 필요.
- 홍보: 특정한 지역 방송 외 언론매체들의 배타적 태도 및 참여 부족. 제한된 예산으로 홍보 방법의 다양성과 지속성 결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상공간 및 지역사회 행사 통한 지속적 홍보 필요.
-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등 소수의 일방적 주도.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미흡. 자원봉사자 등 직접적 시민 참여활동 부족.
- 예산과 사업추진: 시의 예산에 의존함에 따른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지출의 경직성과 시간 소모.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의 "책 읽는 청주" 담당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 과중. 지역사회 각급 도서관들 간의 보다 명확하고 긴밀한 역할 분담과 협력 필요성. 준비나 실행, 평가 단계에서 "수요자", 즉 시민의 직접 참여 부족.

"책 읽는 청주"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시범사업지역이었던 충남 서산이나 초기에 이를 시작한 익산, 순천 등이 소도시였던 것에 비해, 중규모 도시에서 처음으로 수행된 독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서 상기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진행되는 동안, 청주 내에서 인지도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었던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이 "한 책"의 선정과 배

포,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진행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에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국어국문학과, 충북대학교 한문교육학과 교수, 충청북도교육청 및 청주교육청, 지역 언론인 등이 참여함으로써, 도서관과 다각적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지는 못하였으나 독서의 중요성과 더불어 독후활동으로서 토론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청주와 같은 특정한 지역사회에서의 사례가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을 진행하는, 혹은 계획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책 읽는 청주"는 미국 등에서 발전되었고 어느 정도 표준화 혹은 정형화되어 있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단계별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참조함으로써 시작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일시에 혹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보다 꾸준히 이들을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향후에 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다른 지역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성에 알맞은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모형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윤정옥. 2004.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45-66.
- 윤정옥. 2005.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7-44.
- 윤정옥. 2007.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 단계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5-32.
- 이용재. 2006. 한국 독서운동의 현 단계와 전망: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5-25.
- 조미아. 2007. 한국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대한 고찰: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중심으로. 『도서관』, 62(2): 78-113.
-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6. 『책 읽는 청주,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 「압록강은 흐른다」 워크북』. 청주: 청주시립정보도서관
-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7a. 『2006 책 읽는 청주 사업보고서: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 청주: 청주시립정보도서관
-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7b. 『책 읽는 청주,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 「나의 아
- 름다운 정원」 워크북』. 청주: 청주시립정보도서관
-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7c. 『책 읽는 청주,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 워크북』. 청주: 청주시립정보도서관
-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2008. 『2007 책 읽는 청주 사업보고서: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 청주: 청주시립정보도서관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3. “One Book, One Community: Planning Your Community-wide Read.”
<www.ala.org/ala/ppo/onebookguide.pdf> [online] [cited 2008.1.20].
-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s. 2008.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List by Author.”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byauthor.html>> [online] [cited 2008. 1.20].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he Big Read. 2006. “About the Big Read.”
<<http://www.neabigread.org/about.php>> [online] [cited 2008.1.20].